

재림 기도인

연합회보 2018 3

Prayer Coalition Newsletter - Issue 128



사진: 임운석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 :4 -7)

권두언

위대한 기도 사역 - 기도운동의 성서적 조명과 전망

우리는 과거 어느때 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 큰 사건을 향하여 질주하는 세계의 형편을 볼수 있다.

"지구 역사의 장면은 신속히 끝나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마지막 시대의 위기속에 있다 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건만 우리는 아직 깨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활동과 열심이 이 같이 부족한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러한 무서운 혼수 상태는 사단으로 부터 온 것이다" (2T260, 261)

이러한 역사의 엄숙한 시점에 서 있는 재림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생활의 습관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기도는 선악간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 시킬 것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떤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수 있다" (행적 565)

기도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에 결코 접근할수 없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성소의 기구가운데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것은 분향단이였다. 분향단의 향연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 지성소를 향연으로 채웠다.

요한은 하늘 성소의 계시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 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계 8:3,4) 얼마나 분명한 계시인가. 선악의 대쟁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여 하늘에 상달에 하는 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계속 감당해야 하며 우리의 삶의 습관과 품성이 되도록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성경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때를 위해 선지자를 부르시고 경고와 격려 그리고 책망과 용기의 기별을 주셨다. 각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러하고 특별히 남은 교회를 위한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가 그러하다.

그의 권면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였다. 그것은 기도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화의 체험이였다.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는 끊임 없는 기도의 생활을 강조하셨고 친히 우리에게 기도로 이루어 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 얼마나 분명하며 얼마나 격려가 되며 얼마나 기도에 대한 확실한 성경의 뿌리인가. 그러므로 「기도의 위대한 사역」이라 함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 것이다.

중세로 부터 경건주의 운동은 계속 전개되어 내려 왔으며 경건한 자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얼마나 기도에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가. 엘렌 화잇은 그의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일정가운데서도 세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체하고 탄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기록 하고 있다 . 마치 다니엘의 경험을 연상케 한다 (단 6:10)

그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는 기도였으며 그는 생명보다 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하였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열정과 추진은 기도의 밑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재림 직전 영적 위기아래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기도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경건한 운동이 일어났으니 바로 2007 년 한규형 장로와 그와 뜻을 같이하는 영적 부흥과 개혁을 위한 늦은비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 운동이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조명해 볼때 위기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음이 분명하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반응하는 자를 택하시고 쓰신다. 이 기도운동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자발성, 계속성, 확장성이다. 복음 사업은 항상 이렇게 하여 지속되었으며 발전되었다. 복음 사업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며 세계 끝까지 확장 될것이다. 우리의 기도 운동이 성경에 뿌리를 둔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기도 사역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재능과 경험보다 기도에 능한 자를 택하여 이 사업을 지도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쓰셨다는 것에 있다. 믿음의 노독들은 모두 기도에 능한 자들이었다. 에녹을 보라. 아브라함을 보라. 야곱을 보라. 이들의 이름과 경험을 열거한다면 지면이 결코 다 허락치 않을 것이다. 성도들은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성화의 경험은 기도 없이 결코 달성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딤후 4:5)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영감을 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가하게 하셨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데 있다.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 찌어다'라고 명한 자는 길갈의 진영에서 여러 시간동안 엎드려

기도하던 그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부조 509 쪽)

기도인 연합의 성서적 조명과 전망을 살펴 볼때 기도인 연합 회원들이 절체 절명의 위기의 때에 사단의 파상 공격을 파하고 복음사업의 완결을 위한 기도에 능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성선제 / 기도인연합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기도인연합 2018 년 3 월 정기모임 소식

사회: 정동춘 장로님
 첫기도: 황병모 장로님 (오남)

성경 말씀 묵상: 장병호 목사님 (전 삼육대 신학대학 원장)의 이사야 53:5 구속적 평화를 위한 감사의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합기도회 대표기도: 이학봉 목사님

그룹기도 : 모든 참여자들

1. 교회와 성도들이 늦은비 성령을 위해 준비되도록

교회내 영적 각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a. 2018 북미주 미국인 기도인연합 결성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 새로 시작된 미국인 기도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위해서

b. 지역별 말씀연구 및 기도회의 지속적 확산을 위하여 회원들이 속한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도록

2. 한반도를 위한 기도

북한에 하나님의 섭리로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3. 10/40 창외 비 기독교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에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a. BMW / Oasis World Mission 기드온 300 명 선교 센터 건축

b. 진찰사를 포함한 회원 선교 활동;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를 통한 영상 설교 전도를 위하여

c. 오아시스 선교 3 월 4-18 일 방글라데시, 기도주일 부흥회 및 염소선교 운동

d. 일본 기도인연합을 위해서 그곳에 있을 특별 집회를 위해서

4. 지역 교회 환우 및 각 지역별 기도회원들을 위한 기도 (기도요청)

a. 한국의 의학 대학원 한지만군의 판결 선고에서 승리 할수 있도록 기도

b. 강정주 집사님 (연합기도회 봉사자) 건강회복을 위해서.

광고: 4 월 기도모임은 미주 일광절약 시간제가 시작되어서 한국과 일본은 아침 5:30 에, 중국은 아침 4:30 분에 시작합니다. 미국은 전과 같이 서부시간 오후 1:30 분에 시작합니다.

끝기도: 김영진 목사님 (베이커스필드)

(글: 류복례)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4 월 연합기도회 기도 요청

2018. 04. 01

일본 연합회: 2018 마라나타 특별 전도기획

일본 연합회는 2018 마라나타 특별 전도기획으로 5 월 한달 동안 전국 163 개 교회가 참가하여 10 회 이상 전도회집회를 기지는 성회를 가지게 된다

대총회장 테드윌슨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강사가 말씀을 전하며 동경 한국인교회는 홍명관 목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중보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연합회 보고에 의하면 교단 통신학교에 성경연구 희망자가 쇄도하여 직원이 그 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성령의 도움심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일본선교에 새로운 가능성과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아시스 세계 선교회

3 월 4-18 일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4 월 1 일 이후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 염소 선교 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계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아시스 세계 선교회, 안천수

2018년 3월 5일 오전 6:30분 국제기도인 연합회 영상의 말씀

장병호 / 삼육대학교 신학과 명예교수

구속적 평화를 위한 감사의 기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금년에도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shalom]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구속적 평화를 위한 감사의 기도”(Prayer of Thanks for Redemptive Peace)라는 제목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제 23회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 8-25)이 지난 달에 폐막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화롭게 성공적으로 치르진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들은 하나같이 전쟁의 잣대 위에서, 세계의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이적인 발전에 놀라움과 찬탄을 보냈습니다.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발발할 것 같았던 일촉즉발의 한반도에서, 그것도 휴전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평창과 강릉에서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세계인들의 염려와 걱정이 많았지만, 평화롭게 동계올림픽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경험한 진실은 그 평화의 기간이 잠시 잠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짧은 평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수년간을 준비한 후, 가슴 졸이며 누린 너무나도 값진 평화, 그래서 저는 이 평화를 구속적 평화(redemptive peace)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웹스트사전은 이 평화(peace)를 1) “전쟁을 중단하므로 오는 자유”(freedom from war or a stopping of war) 2)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을 끝내기 위한 조약이나 협정으로 오는 [자유]”(a treaty or agreement to end war or the threat of war), 3) “공공질서의 혼란이나 무질서로부터 누리는 자유; 공공의 안녕, 법이나 질서”(freedom from public disturbance or disorder, public security; law and order), 4) “의견의 불일치나 다툼으로부터의 자유; 조화; 화합”(freedom from disagreement or quarrels; harmony; concord), 5) 혼란이나 갈등이 없는 안정되고 평온한 맘의 상태(an undisturbed state of mind; absence of mental conflict; serenity; in full peace of mind), Michael Agnes ed.,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2005]4th ed., 2005, 1058, 1059 참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국은 우선적인 처음의 두 정의가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누리고 있는 바로 이 값진 평화를 염두에 두고 제시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평화를 제가 구속적 평화(redemptive peace)로 보는 것은, 지금의 이 평화와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찾았거나,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먼저 이 평화가 구속적 평화인 것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 6,25 전쟁에서 217,000 명의 국군과 36,568 명의 미군, 그리고 3,063 명의 유엔군의 죽음으로 얻어진 생명의 대가(代價)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평화 때문에 재림성도들은 이 땅 대한민국에서 맘 놓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국가와 헌법의 권한과 책임이며, 자유는 한 국가의 국민이 “어떤 제도나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질적 가치”(a state or quality of being free)입니다. 따라서 평화와 자유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평화(peace)를 하드웨어(hardware)라고 한다면 자유(freedom)는 소프트웨어(software)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헌법의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은 그 틀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자유에는 신앙을 가질 자유, 종교행위의 자유, 종교 결사의 자유, 더 나아가 양심적 신념의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헌법 제 20 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번영이 전쟁의 완전한 종식으로 온,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는 궁극적인 질적 삶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르다가 정전[휴전]협정을 통해 적대행위를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는 줄지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실로 우리 모두의 회피할 수 없는 소중한 특권이자 큰 책임입니다.

2.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구속적 평화(redemptive peace)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네모에 바람을 잡고 계시므로 인간 역사에 개입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계 7:1). 지금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단히 엄중하고, 그 장래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나라는 벌써 무신론주의와 유물사관에 바탕을 둔 공산사회주의 체제에 들어갔을 것이며, 신앙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값진 평화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속적 자유와 평화가 여러 요인들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 그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저는 메대와 바사의 왕인 아하수어로 (크세르크세스, BC 486~465)의 통치시에 유대인들이 처해있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봅니다. 포로의 후손들로 이국 땅에서 그들이 누리던 그 값진 잠 간의 평화가, 송두리째 하만의 음모와 간계로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은 반전되어 전하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딱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 유대인들이 3 일 동안 금식하며, 울부짖[미스페드/명남]였기 때문입니다(더 4:3, 16; 9:31). 성경에서 금식은 한 국가가 전쟁과 멸망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삿 20:26; 대하 20:3; 예 4:16; 온 3:4-10)나, 또는 국가에 대 재난이 있을 때(을 1 장, 2 장)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에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었고(렘 14:11, 12; 느 1:4; 스 8:21, 23), 그 금식기도에는 언제나 회개가 따랐습니다(삼상 7:6).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러했으며, 온 유대인들이 생사의 기로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공기와 물과 햇빛의 고마움을 종종 잊고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야말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무상으로 준 은혜의 선물(gift of grace)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평화를 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마 16:16). 우리는 그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바로 그분 때문에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shalom]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구속적 평화”에 대한 감동적인 이해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국제기도인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WM March 2018, Bangladesh

**2018년 3월 4-18일
제 1 차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

안천수 / 오아시스 세계 선교회

**** *방글라데시 청년 전국 대회[3/7-10]:**
5 년에 한번씩 연합회 차원에서 열리는 청년 대회인데 4 개 대회[Mission]와 각 학교에서 대표자들 약 1200 명이 모였으며, 주말 금요일과 안식일에는 각 곳으로 부터 교인들이 참석하여 약 1,600 여명이 대강당을 가득히 메웠다. 강사들은 대총회 청소년부 campus ministry 책임자 문지환 목사와 북아태 지회에서 홍광의 목사와 오아시스 세계 선교회 안천수가 주강사였으며 엄영대 장로는 발판리 교육 및 제자훈련과 대민 봉사를 열심히 지도했으며 신명희 집사가 함께 봉사하였다. 청소년들의 열병식과 율동과 찬양이 매우 다채로웠다. 청소년들에게 큰 감동과 유익을 주는 집회였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되신 그리스도 일색의 힘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는 감동적인 안식일 밤까지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로 Unionwide Bangladesh Youth Congress 는 훌륭하게 마쳤다. 각 나라마다 이런 청년 대회가 자주 열리면 청소년들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해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 KMMS 고등학교 기도주일[3/11-17]:**
연합회장 이만주 목사와 방글라데시 1,000 명 선교사 원장 조춘호 목사와 안천수 목사가 아침 7-8 시와 저녁 6 시 반-7 시반 조석 기도주일집회의 세 강사가 번갈아 가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끼치고 신명희 집사는 시간 시간마다 감동적인 특송을 하여 감화를 끼쳤다. 엄영대

장로와 신명희 집사는 발판리 교육과 봉사를 거의 종일 기쁨으로 하였으며 모슬렘 교도들이 많이 발판리지를 받으려고 찾아왔으며 업영대 장로는 발판리 집회시간에 열변을 토하며 모든 질병의 치유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육 훈련 봉사를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점점 더 많이 오는 모슬렘과 힌두인들을 위해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발판리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장이 허락해 주었다. 방글라데시가 독립하기 전 켈커타에서 와서 최초로 재림기별을 전파한 Kellogg Mookerjee 를 기념하는 KMMS 교회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있다. 또 남녀 기숙사가 있으며 주로 한국과 미국 등 외국에서 보내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학비를 보조하고 있다. 학생수는 약 500 명이었다. 마치는마지막 날 16 명이 침례를 받았다.

*** KMMS 고등학교 Pond Project:

KMMS 고등학교 부지는 15 에이커인데 연못이 여러개가 있으며 양어장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가난한 학생들과 고아들[약 200 명]을 돕고 있다. 벼농사를 짓는 논도 상당히 있으나 벼를 심어서 수확하는 것보다 양어장 수입이 10 배나 많다고 한다[같은 면적에서]. 오아시스 세계 선교회에서는 논을 파서 양어장을 만드는 프로젝트 자금 \$ 5,000.00 을 전달하였다. 그 계약으로 최소한 15 명이상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성경 장학금[BIBLE Scholarship; 매일 성경을 30 분 이상 읽고 일기 쓰듯이 성경 통독 일지를 써서 매일 교장에게 보고하는 조건으로 주는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 *남방 대회[Bangladesh South Mission] 야영회:

대회 본부에 대형 천막을 치고 3/14-17 일까지 장막부흥회를 개최했다. 본방인 강사들과 한국인 강사로는 연합회장과 1,000 명 선교사 훈련소장 조목사와 제가 번갈아 설교했다. 신명희 집사의 특송은 많은 감동을 끼쳤다.

*** 염소 선교 운동[GMM]:

자금 전도자 100 명을 위하여 염소 1,000 마리 살 돈 \$50,000.00 과 4 개 학교에 100 명 장학금을 위하여 염소 200 마리를 살 돈 \$10,000.00 과 1000 명 선교사들을 위하여 \$ 20,000.00, 합계 \$80,000.00 을 방글라데시 연합회장과 총무부장과 재무부장 입회하에 연합회 재무에게 위탁했다.

** 연합회장 이면주 목사님과 1,000 명 선교사 훈련원장 조춘호 목사님에게 이 염소선교 운동 총책임을 맡기고 해마다 대학 졸업반 학생들과 모든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과 각 교회 평신도들과 청년들 중에서 바울 사도처럼 자금전도자 후보자들을 해마다 100 명씩

훈련시켜서 염소 10 마리씩 나누어 주고 해마다 100 곳[Villages]에 보내어 염소를 길러서 생활하면서 개척교회 100 씩 개척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5 년이면 500 명의 염소 선교 자금 전도자들을 양성하여 500 곳에 개척 교회를 세우고 10 년이면 1,000 명의 자금 전도자들이 1,000 개의 개척 교회를 세우게 된다.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양성해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천사들의 봉사와 축복이 함께 해야만 한다.

*[잠 16:1,3]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 16:9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 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 20:24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 기도인연합회 회원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 염소 선교 운동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성공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운동의 성패는 염소를 받아 기르는 전도자들의 정직성과 근면성과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된 자금 전도자들을 찾아서 잘 훈련하여 내보내는 것입니다.

염소를 받은 전도자들이 자기 멋대로 팔아먹어 버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합회의 재무와 합회장들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철저히 감독 관리하여 하나도 팔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글라데시 연합회장은 그 자금을 별도로 은행에 3 개월, 6 개월, 1 년씩 분할하여 Time Deposit 해 두었다가 정직하고 성실한 자금 전도자들을 발탁하여 전도법과 염소 관리법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사람이 준비된 후에 돈을 찾아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염소를 사주겠다고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도 모두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참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금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드로와 모세도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으며 모세는 40 년간 양과 염소를 치면서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40 년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었으며 다윗도 17 세까지 양치는 목동으로서 말씀 목장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눅 10:2]. 자급 전도자들을 모집하여 철저히 복음과 세천사의 기별과 전도법과 염소 사육법을 철저히 교육시킨 후에 염소를 사주어 새로운 개척지로 내보내 합니다. 이러한 정직하고 부지런한 일꾼들을 찾아 훈련시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와 자랑스런 한국인 지도자들:

**방글라데시 연합회장, 이면주 목사:

소자가 2 주간 방글라데시에 체류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목사는 43 세 젊은 나이에 방글라데시 삼육대학교 총장으로 부름받아 최선의 헌신과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삼육대학교를 여러면에서 크게 발전시켰으며 4 년 전에 연합회장으로 선출되어 헌신과 충성과 기도와 믿음으로 방글라데시 연합회 내의 각 대회[Mission]와 각 기관들 특히 학교들을 크게 발전시켜 왔으며, 4 개 합회장들과 합회 임원들과 각 학교장들을 잘 지도하며 훌륭한 모범을 보이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으며, 겸허한 자세 사랑의 융화로 봉사하는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고 있어 모든 지도자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다. 해마다 약 1 억[약 10 만불]원의 자금을 모금하여 열 가지 Project 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인 재림교회 은퇴 목사로서 재림교회 선교사로서 이런 젊은 겸손한 지도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기관 사역을 하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한국인 재림교회에 소속됨을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한국 재림교인들과 미국 재림 교인들이 해외 선교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이런 분들을 많은 희생적인 헌금으로 후원과 헌신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방글라데시 연합회 총무부장과 재무부장[여자 집사]은 신앙과 인품이 매우 훌륭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런 분들로서 외국인 연합회장 이면주 목사를 존경하면서 충성을 다하여 협력하므로 방글라데시 연합회내 각 대회들과 각 학교들의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연합회의 분위기가 참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방글라데시 삼육대학 총장 양종호 목사:

4 년 전에 총장으로 선임되어 기도와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대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기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분들에게서 모금하여 남아태지회 17 개 간호학교 중에서 가장 훌륭한 간호학교 건물들[4 층] 건축 완료했으며, 여기숙사를 잘 지었으며 약 1,800 명 수용가능한 이층 멋진 대강당을 건축 완공하여 대회를 하고 있었다.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방글라데시 대학교를 크게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일꾼을 길러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한국인 재림 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을 인하여 한국인 재림교회 은퇴목사로서 이런 후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김은희 간호 학교 학장:

한국 간호대학에서도 간호학을 가르치신 교수로서 방글라데시 자원봉사 선교사로 오셔서 간호학교를 발전시키고 사재를 털어서 간호학교 학장 사택을 훌륭하게 지었으며 또 한 채의 사택을 지어서 학교에 헌납했으며 간호학교에 필히 병원 건물이 있어야 하므로 남아태지회에서 허가[건축]가 나오면 건축 자금 \$100,000.00 을 헌금하기로 서약했다. 이러한 헌신적인 평신도 성도들 선교사들이 세계 도처에서 재림 교회 세계 선교사업에 헌신하고 있음에 대하여 듣고 이런 숨은 인재들을 길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한국 재림교회 은퇴목사로서 이런 헌신적인 선교사들을 인하여 자랑스럽다.

** 방글라데시 1,000 명 선교사 훈련원 원장, 조춘호목사 내외분:

필자가 처음 만난 한국 재림교회에서 2 년전에 조기 은퇴하고 이면주 목사의 초빙으로 자급 선교사로 방글라데시에 와서 2 년간 헌신 봉사하고 있었다. 순회 전도목사와 1,000 명 선교사 훈련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각합회와 각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연합회장의 오른 팔 역할을 훌륭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와 방글라데시와 세계 각국에서 수만명에게 피부 미용[전문] 봉사와 복음 전파를 하시는 분으로 제가 조목사의 철저하고 깊이 연구하여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으며 조목사 부부가 사재를 털어서 지난 2 년간 방글라데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 4-5 천만원[약 4 만불]을 희생적으로 가난한 방글라데시 성도들과 학생들, 1,000 명 선교사 훈련 봉사를 위하여 자원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훌륭한 후배 목사님들이 세계 도처에서 헌신하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며 한국인 재림교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한국 재림교회 교인들[평신도와 사역자들] 중에 영감적이고 열성적이며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성도들이 한국 본토와 미주와 온 세계 각국에서 복음사업과 세천사의 기별을 마치기 위하여 충성하는 열정적인 재림교인들이 많이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중국 대륙선교, 중동 파키스탄, 인도와 방글라데시. 북한 선교, 아프리카 선교, 씨뿌리기 운동 등 다방면으로 헌신하고 계신 재림 성도들을 일으켜주시고 길러주시고 열성을 불어넣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재림교회에 부족한 면과 아쉬운점과 안타까움과 흠이 많이 있는 한편 이런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다하는 재림교회 사역자와

평신도들을 일으켜 사용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재림교회 사역자들과 평신도들 대다수가 더욱 뜨겁게 완전히 100% 헌신하여 늦은비 성령 받을 준비가 완료되어 속히 늦은비 성령이 임하여 이 복음 사업 마치고 영광의 주님 속히 오시도록 축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보고자: 오아시스 세계 선교회장 안천수 은퇴목사



OWM March 2018, Bangladesh

6 하원칙(5W1H)으로 풀어 쓴 세 천사의 기별

손경상 / 기도인연합

2. 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진리를 캐기 위한 네 가지 도구

아는 대로 보이고 아는 만큼 이해된다!

세 천사의 기별 속에는 구원에 관한 최고의 진리들이 들어 있다. 진리의 세계는 무한히 넓어서 끊임없이 읽고 또 연구하여도 여전히 깨달을 것들이 존재한다.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 반면, 쉽게 깨닫기 어려워 영똥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주 듣고 보고 연구하지만 말씀 속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사고체계방식이 자리 잡고 있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곧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그릇 깨닫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사

고가 기본적으로 이기적 본성과 세속적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아는 대로방식 보이고, 아는 만큼지식의 양 이해되는 특징이 있다.

아는 대로 보인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방식대로 진리가 깨달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는 방식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형성되므로 아는 방식은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진리를 깨닫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진리는 잘못 이해된다. 그런데 아는 지식의 양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아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진리를 잘못 해석하여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이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죄된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탄이 적극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자 자신의 생각을 넣어 둔 세속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선에 대한 성경의 말씀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 영똥한 방향으로 잘못 해석하게 된다.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사고체계 곧 사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어 자기의 방식대로 진리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모습이라도 다 예쁘게 보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과 모습은 모두 미워 보이는 이치와 같다.

진리 탐구를 위한 네 가지 방법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함에 있어서 본인이 사용한 간단한 진리 탐구의 도구방법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방법들은 우리의 닫힌 사고를 열어 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게 해 주는 방법들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더 깊이 캐어 내어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움이 되는 도구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들은 진리를 캐내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게 해 주는 핵심은 아니다. 단지 진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담기 위한 효율적인 사고의 틀만을 제공한다. 오직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가지 방법의 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6 하원칙의 틀

진리 전체를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틀로 '6 하원칙'이 있다. 여기서는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고 기본적인 틀로 사용하였다. 세 천사의 기별을 6 하원칙으로 파악하면 기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 기별의 본질을 알 수 있다. 기별이 언제 When

전해져야 하는지, 어디서 Where 전해져야 하는지,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 Who 이 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 What 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How 전해야 하는지, 기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 Why 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세 천사의 기별을 구성하는 안식일, 선악의 대쟁투, 남은 자손의 정체성, 하나님의 율법 등의 진리들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어떤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둘째, 물음의 틀

‘왜?’라는 물음의 틀이 있다.

6 하원칙들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왜?’라는 질문을 하였다. ‘왜?’의 물음은 사실의 세계 너머에 있는 진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는 도구이다.

왜 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하는가? 왜 세 천사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곧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왜 마지막 시대는 남은 무리의 탄생을 기다리는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만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왜 세 천사의 기별이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할 기별이 되는가? 왜 남은 무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결국 ‘왜?’라는 물음을 통하여 안식일, 선악의 대쟁투, 남은 무리의 정체성 등의 진리들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이 시대의 상황과 온 세상 백성의 문제도 더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

셋째, 개념의 틀

세 천사의 기별을 구성하는 진리들을 명확히 깨닫기 위하여 ‘개념’의 틀을 이용하였다. 단어들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자 세상적 개념들과 구분하였다. 우리는 성경적 개념들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긴 진리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먼저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만일 세상적 개념의 선과 악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구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수적이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들을 잘못 이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사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 개념으로 진리의 개념들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죄를 세상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실제로는 별로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적 죄의 개념에서 우리는 다른 이웃에게 특별히 나쁜 짓을 저질렀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들을

구성하는 많은 단어에 대한 성경적 개념들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넷째, 선 사상의 틀

성경의 최고 핵심 진리인 하나님의 선 사상의 틀로 세 천사의 기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 곧 하나님의 품성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에 관한 진리 연구의 최상의 초점이다.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아는 것이 곧 구원요 17:3 이기 때문이다.

선 사상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남은 자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상이기에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깊이 알 필요가 있다.

안식일의 제정 목적 또한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을 찾아 우리로 하나님의 선 사상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네 가지 방법은 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진리를 파악하는 데 매우 큰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진리를 파악하는 데 보다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은 책 뒤편의 부록에 기록하였다. 이 책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표 1> 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진리를 찾기 위한 네 가지 방법(도구)

성경의 진리 탐구 방법

- ① 6 하원칙의 방법을 통해 전체적으로 진리를 파악하자.
- ② ‘왜?’라는 물음을 통해 진리를 보다 깊이 파악하자.
- ③ 세상적 개념과 성경적 개념을 구분하여 성경의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자.
- ④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는 만큼 구원의 진리가 더 깊이 이해될 것이다.

3. 6 하원칙으로 풀어 쓴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말이다. 선악의 대쟁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별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시작한 기나긴 대쟁투를 종식시킬 기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세상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었다. 그런데 정작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냐고 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한다.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더더욱 말문이 막힌다.

여기서는 6 하원칙에 의해 세 천사의 기별을 총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문제나 사건의 본질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6 하원칙을 사용하여 세 천사의

기별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에 세상에 전파할 수 있다. 세 천사의 기별의 중심이 되는 몇 성경절과 예언의 신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선악의 대쟁투 그리고 안식일 진리와 올바른 구원관을 알아보겠다.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영원한 복음으로서의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과 ‘그분의 본성과 율법 또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는 기별이다. 아울러 사랑인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이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보증의 기별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졌다.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교회증언 5 권, 743). 행복은 죄(罪)에 의해 정복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의(義)의 본성으로 회복시킴으로 비로소 완전하게 얻어질 것이다.

2017 국제림기도인연합성회 기념 출판
영의 세계와 그 투쟁

김명호 / 기도인연합

제 5 장 영혼불멸설과 귀신 (I)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선한 영과 악한 영에 대하여 대략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성경에 근거하여 오늘날 온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거나 빠져 있는 영혼불멸설과 귀신의 정체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영혼불멸설은 루시퍼가 에덴동산에서 여자에게 주장한 최초의 거짓 교리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산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산(조예) 영(푸쉬케)의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들은 창조해주신 그대로 있으면 영생하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다.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력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생명력을 거두어 가실 리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이 생명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받아 가실 수밖에 없다. 그들이 거절하는 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29)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눅 20:35,36)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열매가 제공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할 때에 죽을 수 없는 상태로 부활한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실까? 그들이 그냥 생명나무 과실을 따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기록하였다. 물론 이 말은 일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따서 먹도록 주신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도록 허락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도록 하신다는 말씀이다.

생명나무 실과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과실이라는 뜻이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 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다.

아담 부부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이런 영생의 생명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이신 말씀하나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렸다. 생명을 버린 것이다.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다. 이것은 창세전에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의논 된 것이었다. 삼위여호와 하나님은 집회의 산에서 회의를 하신다는 것은 이미 말한 사실이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하나님

사이에 평화에 관한 의논이 있었다.(속 6:13, 대쟁투 416 쪽 참조)

우주의 어느 세계의 사람이든지 그들이 생명의 문을 나가서 사망의 땅으로 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때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로 의논한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는 창세전에 알려진 자라고 가르쳐준다.

[벧전 1:19,20]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20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씀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실 것이 창세전에 알려진 것이다. 이 지구의 아담이 생명을 버리고 사망으로 나갔기 때문에 말씀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오시게 된 것이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을 거절하여 생명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냥 두면 그대로 생명과 존재를 상실하여 완전히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어서 영원히 흠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셨다. 창세기 2 장 16,17 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창조주께서는 창세기 3 장 17~19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흠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는 것은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는 선언이다. 그냥 흠이 되고 생명과 생명을 받았던 그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손상을 입게 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셨는데 땅은 빈 땅이 되고 헛되게 창조한 것이 되는 것이다.

[사 45:18] 여호와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하셔서 땅을 창조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셨는데 사람이 영원히 흠으로 돌아가 버리면 땅을 창조한 일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영원히 창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되도록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에’를 버린 사람에게 ‘비오스’를 허락하시고 그 ‘비오스’의 기간 동안 다시 ‘조에’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수명이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다.(히 9:27) 루시퍼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거짓말을 만들었는데 이미 저 앞장에서 말한 대로 몸은 죽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영혼불멸설이 이렇게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니르롯 전설과 함께 이 사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사로잡았다. 고대 세계의 우상 종교들은 모두 영혼불멸사상으로 채워져 있다. 옛날 군왕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군림하였고 죽어서도 그 영혼이 신의 세계에 간다고 믿고 주장하였다. 이런 사상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많은 부장품을 무덤에 시신과 함께 묻도록 한 것이다. 영혼의 세계, 흔히 말하는 저승에 가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두 헛된 소망이다. 사단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 의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생명과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죽음 후의 상태는 죽은 자도 모르지만 호흡하고 있는 사람도 모른다. 사단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속이고 영매를 통하여 찾아오면 죽음의 세계를 모르는 호흡하는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실을 알려주는 책도 없고 지식도 없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그 바탕이 영혼불멸설이다.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종교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세상에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해야 사후에 영혼이 평안하고 안락한 곳에 가서 호강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종교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모든 종교는 내세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제정된 교리서가 없는 무당교도 내세에 대한 사상이 핵심이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서 그들로부터 지혜를 얻고 점을 치러오는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말해준다. 그것은 무당인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그에게 접신한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이 주는 지식이라고 믿는다.

당연히 그것은 루시퍼에게 속한 악령들 곧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따라다니며 그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된 것을 통하여 그의 사상까지 추리하고 죽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선한 천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보호한다.

[마 18: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하등종교만이 아니고 소위 고등종교도 이런 사상이 기본이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이고 이슬람이다.

인도의 종교인 힌두나 일본의 신도, 중국의 도교, 유교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유교는 내세보다는 현세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고 왕도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려는 것이 사상이다. 그래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하여는 말이 없다. 공자의 제자 계로(자로)와 공자 간에 귀신 섬기는 것과 사후에 대하여 문답한 것이 논어 선진편(先進篇)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 옮겨보면 “(季계로로問문사사鬼鬼神神, 子子재재曰曰왈未미능능사사人인 焉언능능사사鬼鬼, 敢감問문死死, 曰曰왈未미지지生生 焉언지지死死)” 이 문답을 풀면 “계로가 귀신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감히 죽음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했다.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겠느냐?”

공자는 정직하였다. 공자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유교는 조상 제사 모시는데 열심이다. 조상 제사를 모신다는 것은 조상들의 혼령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조상 제사는 유교의 예법의 중심에 있다. 결국 유교도 영혼불멸설을 믿고 있는 것이다. 영혼불멸설을 믿는 것이 같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불선(儒佛仙), 곧 유교, 불교, 선교(도교)가 사상적으로 적대감이 없이 어울려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고등종교들도 그 기본 바탕이 영혼불멸의 내세관이다.

이런 종교에 더하여 카톨릭이나 정교를 위시한 대부분의 개신교도 동일한 사상이 기본이 되어 있다. 그들도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어 있다. 루시퍼는 참으로 엄청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로 수많은 사람이 이 사상에 젖어서 살았고 죽어서 영혼이 내세에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했다. 귀신과 그 귀신을 다스리는 어떤 신을 달래어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서였다.

민족과 나라에 이런 종교가 없는 데가 없었다. 이런 종교들은 인륜이나 도덕성에도 문제가 많았다. 신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고, 성경에는 몰록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친 유다 왕 아하스와 므낫세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대하 28:3, 33:6) 유다의 왕들까지 이런 짓을 했으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말할 필요도 없다. 온 세상이 세상 신(고후 4:4)을 믿는데

그것이 바로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상 신의 활동은 쉽다.

그러니까 고대종교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고등종교들까지도 영혼불멸설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루시퍼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 교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무의식중에 영혼불멸을 믿는 것을 드러낸다. 그들이 개인이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점을 쳐보라는 권고를 쉽게 받아들인다. 무속인들이 재물을 쌓는다.

필자는 잘 모르는 일이라 언급하는 일이 적절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무속인들이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이나 곳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용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큰 곳을 하면 수천만 원 이상 억대로 올라가기도 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혼령에게 물어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산 사람이 모르는 것을 죽은 사람의 영혼(혼령)이 알겠는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전 9:5) 창조주께서 성경에 분명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속을 필요가 없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사 8:19)

그런데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일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드려가며 하고 있다. 세상의 역사적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일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 전국에 재림 성도님들께 강력한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

경북대 의학전문 대학원에 재학중인 한지만군의 판결 선고기일이 2018.04.18.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지만 군은 2017년 3월 부터 학교에 재학하며 안식일에 배정된 시험을 다른 날에 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 신문고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학교측을 움직일 방법이 없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 조 1 항에 언급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학교 학칙에 명시된 추가시험 관련 내용을 근거로 시작한 재판은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학교측과 학생측의 수차례의 변론이 있었고, 이제 3월 28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4월 18일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에,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안식일 준수를 위한 추가시험 요청에 대한 첫 재판으로, 당장은 전국 재림교인 학생들의 안식일 준수와 직결되며, 앞으로는 수많은 재판에 판례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에 전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뿐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때, 온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재림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기도시간에, 조석으로 드리는 가정예배시간에, 그리고 각 지역교회의 예배시간에 이 재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어느 모로 보든지 그들의 원수가 자기들을 압도할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결코 양심을 거스리지 않도록 하라. 그들을 대신해서 고생하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지신 주님께서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로 아무런 방비도 없이 버림받지 않았다.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인다. 기도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히 11:33, 34)다." (실물교훈 중)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드림-

To all Adventist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e are writing to request your prayers for Korea. A young Korean Adventist, Jiman Han, is awaiting the court's decision in a trial to keep the Sabbath while in medical school. The decision will be rendered on April 18, 2018.

Jiman is a first year student at medical school. At the beginning of his first semester, he noticed that many of his exams had been scheduled for a Saturday. He made a commitment to honor God and His commandments and pleaded with the school for a religious accommodation so he could take his exams outside of Sabbath hours. However, despite many conversations and correspondences with his professors and school officials, the school rejected his request, and Jiman was unable to take his exams.

Jiman appealed his case bef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but to no avail, and began a lawsuit to compel the school to grant him the religious accommodation.

The school's policy permits alternative testing for those who cannot take the exam "due to illness or any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No one shall be discriminated against in any area of political, social or cultural life due to...religion." We believe a public school's refusal to make any effort to provide a reasonable accommodation that would allow a student to honor his sincerely held religious beliefs violates the school's policy and the Korean Constitution.

The school has been vigorously litigating this case, and the final hearing was on March 28. The judgment will be issued on April 18.

This is a very important case, not only for Jiman but for all Korean Adventists who face a similar situation in school and when looking for work or taking qualifying exams. It is the first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cerning religious accommodation for Sabbath observance and will serve as a precedent in numerous future cases.

We have done everything we can and the results are in God's hands. Please pray that our Lord, who moved the heart of Cyrus to liberate the Jews, will impress the judges to grant the Adventists of Korea the freedom to honor God by keeping His Sabbath holy. When Esther was preparing to go before the king, all the Jews of the land prayed in union. Please join us in prayer during your personal devotion and family worship and at your local church.

May God keep us faithful as we prepare for His Coming.

Blessings,

The Society for Religious Freedom and Equal Opportunity of Korea

기도인연합 미성경연구 연결망 안내

오늘 이 메일을 받은 분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여 차후 이웃에 전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오직 믿으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거나 참된 깨달음없이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성경을 바르게 경험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을 산 경험과 함께 제시됨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산 경험이라 함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화로 받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에는 세상이 줄수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귀한 경험을 위한 성경연구 모임을 미(MEE) 성경 연구로 칭하는데 모세 (MOSES), 엘리야 (ELIJAH) 그리고 에녹(ENOKH)의 영문 이름 첫 자를 딴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에녹은 살아 승천하였거나 죽었어도 부활하여 지금 땅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현재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 재림을 소망하며 마지막 시대 주어진 사명에 함께 진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잃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잠잘때 생명없는 상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잠이 들때 죽음과도 같은 무의식에 들어갑니다. 그 무의식속에는 선도 악도, 부와 빈도 아무런 차이도, 그것들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잃은 생명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잃은 생명에게는 온 세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상상의 한계를 넘습니다. 그런데 2 천년전의 예수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나 결국 그 생명을 가르치는 성경이 예수를 가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영원한 생명은 예수에 대한 체험적 믿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적 믿음은 다가오는 그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중단없이 지속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미성경연구 모임의 확산을 통해 함께 알리고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신앙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냐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Ed 257.7)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것이며, 계속적인 필요와 의뢰심이 생길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Ed 258.3)

미 성경연구 내용

마지막 시대를 위한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해 및 간증을 포함한 말씀

미 성경연구 참여 방법

북미서부 지역모임:

미서부그룹-1: 2018 년 미서부 지역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8 시 (미서부 시간)에 40 분 동안 진행되며 직접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컨퍼런스 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12) 775-7035 / 액세스 코드: 889722#

미서부그룹-2: 미국인 기도회원 또는 영어가 가능한 분들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미서부 시간)에 50 분간 있으며 아래 번호를 사용합니다.

(818) 273-1108 (엑세스 코드 필요없음)

또한 해외에서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성경연구 모임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성경연구: meebible@prayercoalition.com
문의 전화: 253-326-6451

그외 미 서부 그룹, 동부 그룹,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기타 지역 그룹 모임은 모임이 준비되는대로 추후 발표합니다.

미 성경연구 연결망 (MEE Network) 참여

정기적으로 미성경연구에 참여하는 단체 및 성경연구 그룹들이 함께 모여 연구발표 및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하기 원하는 그룹의 대표자는 위의 이메일 주소로 순서 날짜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2017 국제재림기도인연합 성회 말씀

마지막 사건들과 늦은비 (Final Events and the Latter Rain) 1 부

알렌 데이비스

I spoke earlier about the the Final Generation and what this group looks like. Now we need to closely examine the final events that lead up to the revealing of the final generation, how they need to prepare, and the events themselves up to the second coming of Jesus.

I've heard so many far out theories lately; people are getting confused. If you can't find it in the Bible or in the Spirit of Prophecy, then throw it away. This doesn't mean we don't look to current events to understand the signs of the times, but we need to remember the book of Revelation, for example, is a symbolic book; thus, we need to look to how the Bible interprets itself and explains the symbols. Moreover, we need to look to the writings of the prophet the LORD has given us in these last days to help us understand what these symbols mean.

One thing we read in the book of Acts is: "And when the day of Pentecost was fully come, they were all with one accord in one place. ... And all that believed were together, and had all things common;" (Act 2:1, 44 KJV) The anti-type of Pentecost is the Latter Rain, as it is written:

“And they waited for me as for the rain; and they opened their mouth wide [as] for the latter rain.” (Job 29:23 KJV)

“Ask ye of the LORD rain in the time of the latter rain; [so] the LORD shall make bright clouds, and give them showers of rain, to every one grass in the field.” (Zec 10:1 KJV) Again, “These scenes [of Pentecost] are to be repeated, and with greater powe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was the former rain, but the latter rain will be more abundant. The Spirit awaits our demand and reception. Christ is again to be revealed in His fullness by the Holy Spirit’s power.” (COL 121)

There are many today praying for the Latter Rain, yet there is a misunderstanding of how and when the Latter Rain is to come. First of all, we need to recall Jeremiah 3:3: “The showers have been withholden, and there hath been no latter rain; and thou hadst a whore’s forehead, thou refusedst to be ashamed.” I’m going to, by God’s grace, help clear things up for us today. You will leave here knowing precisely how the final events play out—the Bible and the Spirit of Prophecy don’t leave it up to guesswork or private interpretation. We can have confidence in a more sure word of prophecy.

There are seven final pieces in the plan of redemption—one is presently in progress. They are:

(1) the gathering of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as a result of the Shaking that began in 1844; (2) the National Sunday Law; (3) the Seal of God; (4) the outpouring of the Latter Rain; (5) the giving of the Loud Cry; (6) the general close of probation and the subsequent plagues; and (7) the literal,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1798, 1844, and the Shaking

First, we need to understand the “time of the end” began in 1798, at the giving of the deadly wound to the papacy, which ultimately saw the demise of the Papal States in 1813. So let me ask you, was the deadly wound the capturing of the pope? No. Then what was it? It was the breaking of the union of church and state that was set up in 538 under Justinian, when the first Sunday law was imposed in May of the same year:

“On May 1, 538, Justinian’s Novel 67 prohibited ‘the practice of unlawful religious rites,’ meaning, of course, that only the ‘one and true Catholic faith’ was to be recognized. Freedom of choice and religious liberty were then totally denied and legislated out of existence.... [Justinian] did nothing in ecclesiastical matter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ope.” (The “Daily” Source Book, p. 118, 119, emphasis added)

This is going to be important as we look at Revelation 13 a little later.

Now in 1844, something very specific happened—the Great Disappointment, as we call it. Yet, there is something else that happened many don’t either know or consider. The blowing of the sixth trumpet—some contend the seventh because of Uriah Smith’s book. But we need to be careful: The trumpets were not his interpretation nor were they specifically endorsed by Sister White. (I’m not going to go into a deep study of the trumpets—perhaps another time—but I do need to set the stage for our further understanding.)

- The sixth trumpet is a vivid description of the gathering of the wicked by Satan’s three angels for the final battle against God’s remnant: three unclean frogs that come out of the mouth of the dragon,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RCC, apostate Protestantism, and spiritualism!

- The final gathering began in 1844 and will intensify until the beginning of the Harvest (which is the passing of the judgment from the dead unto the living—the initial closing of probation! And there is an even associated with this.)

- Immediately prior to the close of probation (prior to the seventh angel sounding), Satan will bring about a great counterfeit revival!

- The purpose of the revival will be to preempt and counterfeit true revival that will take place at the outpouring of the Latter Rain and the giving of the Loud Cry!

This where we are at present—the blowing of the sixth trumpet.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nsity of the Shaking going on, such that two camps are forming rapidly. Do you see it?

It's the separation of the wheat and tares during the period of the church militant—the time we're in. What causes the Shaking?

I asked the meaning of the shaking I had seen and was shown that it would be caused by the straight testimony called forth by the counsel of the True Witness to the Laodiceans. This will have its effect upon the heart of the receiver, and will lead him to exalt the standard and pour forth the straight truth. Some will not bear this straight testimony. They will rise up against it, and this is what will cause a shaking among God's people. {EW 270.2}

Let me share with you a passage regarding the church militant from Testimonies to Ministers and Gospel Workers, pp. 45-6:

Has God no living church? He has a church, but it is the church militant, not the church triumphant. We are sorry that there are defective members, that there are tares amid the wheat.... In the parable of the wheat and the tares, we see the reason why the tares were not to be plucked up; it was lest the wheat be rooted up with the tares. Human opinion and judgment would make grave mistakes. But rather than have a mistake made, and one single blade of wheat rooted up, the Master says,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then the angels will gather out the tares, which will be appointed to destruction. Although in our churches, that claim to believe advanced truth, there are those who are faulty and erring, as tares among the wheat, God is long-suffering and patient. He reproveth and warns the erring, but He does not destroy those who are long in learning the lesson He would teach them; He does not uproot the tares from the wheat. Tares and wheat are to grow together till the harvest; when the wheat comes to its full growth and development, and because of its character when ripened, it will be fully distinguished from the tares. {TM 45.2}

The church of Christ on earth will be imperfect, but God does not destroy His church because of its imperfection.... While the Lord brings into the church those who are truly converted, Satan at the same time brings persons who are not converted into its fellowship. While Christ is sowing the good seed, Satan is sowing the tares. There are two

opposing influences continually exerted on the members of the church. One influence is working for the purification of the church, and the other for the corrupting of the people of God. {TM 46.1}

Notice carefully the wheat and tares are to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When does this revelation occur? This is going to be important as we understand what happens at the next point in the series of events—the National Sunday Law. Let me ask you: Do you believe it's close, even at the door?

National Sunday Law

For the past 170 years, we've been living during the sounding of the sixth trumpet, the events of the sixth seal, and the time of the sixth church (Philadelphia) that has entered into the MHP for the Investigative Judgment—the Scriptures call it Laodicea—and we understand it to be the anti-typical Day of Atonement. We need to understand what this really means. We need to understand we're to be getting ready to finish the work—we must be getting settled into the truth so we might be safe to save. The Prophet wrote:

We are now living in the great day of atonement. In the typical service, while the high priest was making the atonement for Israel, all were required to afflict their souls by repentance of sin and humiliation before the Lord, lest they be cut off from among the people. In like manner, all who would have their names retained in the book of life should now, in the few remaining days of their probation, afflict their souls before God by sorrow for sin and true repentance. There must be deep, faithful searching of heart. The light, frivolous spirit indulged by so many professed Christians must be put away. There is earnest warfare before all who would subdue the evil tendencies that strive for the mastery. The work of preparation is an individual work. We are not saved in groups.... Everyone must be tested and found without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GC 489.3}

Solemn are the scenes connected with the closing work of the atonement. Momentous are the interests involved therein. The judgment is now

passing in the sanctuary above. For many years this work has been in progress. Soon—none know how soon—it will pass to the cases of the living. In the awful presence of God our lives are to come up in review. At this time above all others it behooves every soul to heed the Saviour's admonition: "Watch and pray: for ye know not when the time is." Mark 13:33. "If therefore thou shalt not watch, I will come on thee as a thief, and thou shalt not know what hour I will come upon thee." Revelation 3:3. {GC 490.1}

This passage clearly tells us a test is coming: A test of loyalty; a test to see if the soul has surrendered all to God and allowed every thought, word, and action to be brought into captivity and purified by Christ's righteousness.

The Lord has shown me clearly that the image of the beast will be formed before probation closes; for it is to be the great test for the people of God, by which their eternal destiny will be decided.... [Revelation 13:11-17 quoted.] {7BC 976.2}

This is the test that the people of God must have before they are sealed. All who proved their loyalty to God by observing His law, and refusing to accept a spurious sabbath, will rank under the banner of the Lord God Jehovah, and will receive the seal of the living God. Those who yield the truth of heavenly origin and accept the Sunday sabbath, will receive the mark of the beast (Letter 11, 1890). {7BC 976.3}

The Sabbath will be the great test of loyalty, for it is the point of truth especially controverted. When the final test shall be brought to bear upon men, then the line of distinction will be drawn between those who serve God and those who serve Him not. {GC 605}

There are two things I want you to notice from these last passages: (1) the image of the beast will be formed before probation closes, and (2) there is a work of preparation to be done prior to the test.

The Image of the Beast

Let's turn to Revelation 13:1-4; 11-17. Notice here we have the beast and an image to the beast that will be set up by the beast that comes out of the earth, which The Great Controversy identifies as the United States. It talks about the deadly wound that would be healed (vs. 3). So what is the wound? The wound i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brought forth not only after the French Revolution, but also the dictates of the US Constitution, such that,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During the period of papal supremacy—538 to 1798—there was a distinct union of church and state, whereby the religious arm had and used the power of the civil arm. The deadly wound in 1798 separated the un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Papal States in 1813 (after Napoleon's loss at the Battle of Leipzig) ushered in the period of papal darkness.

But lately we've seen resurgence of wanting to unify church and state in the form of subtly bringing in a push for Sunday observance in the form of attracting folk to a day of rest in a helter skelter world—when this occurs, the wound will then be healed. Just as the loss of the union of church and state (i.e., the "killing" of the Sunday Law in 1798) was the deadly wound, so the passing of the Sunday Law by the beast from the earth will be the wound healed.

Recently, an Arizona politician stated, "We should be debating a bill requiring every American to attend a church of their choice on Sunday." The Bishop of Rome's encyclical made four distinct pushes for Sabbath observance and connected them to Sunday (and world leaders, in December 2015, passed an environmental bill—led by Rome and the US—that will mandate compliance by the signatory countries); several countries in the EU have already made movements and laws toward Sunday civil rest.

And as we know, the Bishop of Rome met with President Obama on 23 September 2015, and addressed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the

24th. Let me share with you part of what he said to Congress:

You are called to defend and preserve the dignity of your fellow citizens in the tireless and demanding pursuit of the common good, for this is the chief aim of all politics....Legislative activity is always based on care for the people. To this you have been invited, called and convened by those who elected you.

Yours is a work which makes me reflect in two ways on the figure of Moses. On the one hand, the patriarch and lawgiver of the people of Israel symbolizes the need of peoples to keep alive their sense of unity by means of just legislation. On the other, the figure of Moses leads us directly to God and thus to the transcendent dignity of the human being. Moses provides us with a good synthesis of your work: you are asked to protect, by means of the law, the image and likeness fashioned by God on every human face.

Now let me share with you the transcript from a commercial about Ram pickup trucks that aired earlier last year:

In a work, work, work world, what difference will one day make? The earth won't alter its course. Cats and dogs will be cats and dogs. Rain will still fall from the sky. So take time for Sunday.

The Bishop of Rome was also in Philadelphia and discussed the concept of a family day and the implications of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families spending time together where the world and the hectic toils of life don't get in the way. Could this be what Sister White referred to as the "law of attraction" and the first phase of Sunday legislation? Look at this:

To secure popularity and patronage, legislators will yield to the demand for a Sunday law. Those who fear God cannot accept an institution that violates a precept of the Decalogue. On this battlefield comes the last great conflict of the controversy between truth and error. And we are not left in doubt as to the issue. Now, as in the days of Mordecai, the Lord will vindicate His truth and His people. {5T 450.2}

Trial and persecution will come to all who, in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refuse to worship this false sabbath. Force is the last resort of every false religion. At first it tries attraction, as the king of Babylon tried the power of music and outward show. If these attractions, invented by men inspired by Satan, failed to make men worship the image, the hungry flames of the furnace were ready to consume them. So it will be now. The papacy has exercised her power to compel men to obey her, and she will continue to do so. We need the same spirit that was manifested by God's servants in the conflict with paganism (The Signs of the Times, May 6, 1897).{7BC 976.9}

Are we witnessing a setting up of the image of the beast?

Already preparations are advancing, and movements are in progress, which will result in making an image to the beast. Events will be brought about in the earth's history that will fulfill the predictions of prophecy for these last days (The Review and Herald, April 23, 1889).{7BC 976.1}

We are watching the golden image being erected right before our eyes. Now....what are you going to do to prepare for this crisis?

A Work of Preparation

Let's take a look at what the Messenger of the LORD has to say in Christ Object Lessons:

It is in a crisis that character is revealed. When the earnest voice proclaimed at midnight, "Behold, the bridegroom cometh; go ye out to meet him," and the sleeping virgins were roused from their slumbers, it was seen who had made preparation for the event. Both parties were taken unawares; but one was prepared for the emergency, and the other was found without preparation. So now, a sudden and unlooked-for calamity, something that brings the soul face to face with death, will show whether there is any real faith in the promises of God. It will show whether the soul is sustained by grace. The great final test comes at the close of human probation, when it will be too late for the soul's need to be supplied.{COL 412.1}

One thing I want to mention: The Midnight Cry is not the second coming. It is the type of the saints being ready for the Latter Rain and Loud Cry; it carries on until the close of probation. Some teachers today are proclaiming this to be Jesus' second coming, but what we see here is the church being purged of the tares and the wheat entering into the marriage to prepare for its final work and, at the end, the complete shutting of the door.

Now, we're going to see briefly what she means by the close of human probation and how it aligns with the Harvest. Sister White stated again in another place:

Those who would be ready to meet their Lord must keep their lamps filled with the oil of grace. It was a neglect to do this that distinguished the foolish virgins from the wise. They had lamps, but no oil; their characters could not stand the test. The wise virgins had not only an intelligent knowledge of the truth, but through the grace of Christ their faith and patience and love constantly increased. Their lamps were replenished by their vital connection with the Light of the world. And while the foolish virgins awoke to find their lamps burning dimly or going out in the darkness, the wise virgins, their lamps burning brightly, entered the festal hall, and the doors were shut. {RH February 3, 1903, par. 3}

Notice how grace is associated with character perfection—it's much, much more than simply God's unmerited favor as some want to contend. It's about being empowered by the strength and the merits of Christ to reform the mind and character and prepare the soul for translation. So what is this work of preparation prior to the passing of the Sunday Law with its civil penalties and eventual death decree? Let's go to Daniel Ch. 3 for our answer.

Further, we have in Testimonies Vol. 5:

We as a people have not accomplished the work which God has committed to us. We are not ready for the issue to which the enforcement of the Sunday law will bring us. It is our duty, as we see the signs of approaching peril, to arouse to action. Let none sit in calm expectation of the evil, comforting themselves with the belief that this work

must go on because prophecy has foretold it, and that the Lord will shelter His people. We are not doing the will of God if we sit in quietude, doing nothing to preserve liberty of conscience. Fervent, effectual prayer should be ascending to heaven that this calamity may be deferred until we can accomplish the work which has so long been neglected. Let there be most earnest prayer, and then let us work in harmony with our prayers. {5T713.4}

This passage reflects the earnest fasting and prayer in sackcloth by Esther, followed by her intercession to the king. Writing of the Investigative Judgment and the time prior to final events that will usher in the Harvest, the Seal of God, and the Latter Rain and Loud Cry, Sister White wrote:

Those who would share the benefits of the Saviour's mediation should permit nothing to interfere with their duty to perfect holiness in the fear of God. The precious hours, instead of being given to pleasure, to display, or to gain-seeking, should be devoted to an earnest, prayerful study of the Word of truth. (Is this what it means to live in the anti-typical Day of Atonement, such that Hebrews 4:11 and Isaiah 58:13, 14 apply?) The subject of the sanctuary and the investigative Judgment should be clearly understood by the people of God.... Every individual has a soul to save or to lose. Each has a case pending at the bar of God. Each must meet the great Judge face to face. How important, then, that every mind contemplate often the solemn scene when the Judgment shall sit and the books shall be opened, when, with Daniel, every individual must stand in his lot, at the end of the days. {GC88 488.2}

We're also given counsel as to how to prepare our homes and shelter our families from the little time of trouble:

The Protestant world have set up an idol Sabbath in the place where God's Sabbath should be, and they are treading in the footsteps of the Papacy. For this reason I see the necessity of the people of God moving out of the cities into retired country [places,] where they may cultivate the land and raise their own produce. Thus they may bring their

children up with simple, healthful habits. I see the necessity of making haste to get all things ready for the crisis.—Letter 90, 1897

Further,
When the Protestant churches shall unite with the secular power to sustain a false religion, for opposing which their ancestors endured the fiercest persecution; when the state shall use its power to enforce the decrees and sustain the institutions of the church—then will Protestant America have formed an image to the papacy, and there will be a national apostasy which will end only in national ruin (The Signs of the Times, March 22, 1910).{7BC 976.4}

There are those who are waiting for the passing of the Sunday Law to get ready. They will find, however, at that point it is too late. The time in which we live is anti-typical of the Parable of the Ten Virgins. The parable itself is a depiction of what has been transpir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sixth trumpet in 1844, when Jesus' ministry moved from the Holy to the Most Holy Place in the Heavenly Sanctuary. After the Great Disappointment, many believed once they understood the change in ministry that Jesus would return soon; yet after 1888, many of the hopeful saints' faith began to waver.

In this parable, as in that of Matthew 24, two classes are represented. All had taken their lamps, the Bible, and by its light had gone forth to meet the Bridegroom. But while "they that were foolish took their lamps, and took no oil with them," "the wise took oil in their vessels with their lamps." The latter class had received the grace of God, the regenerating, enlightening power of the Holy Spirit, which renders His word a lamp to the feet and a light to the path. In the fear of God they had studied the Scriptures to learn the truth, and had earnestly sought for purity of heart and life. These had a personal experience, a faith in God and in His word, which could not be overthrown by disappointment and delay. Others "took their lamps, and took no oil with them." They had moved from impulse. Their fears had been excited by the solemn message, but they had depended upon the faith of their brethren, satisfied with the flickering

light of good emotions, without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truth or a genuine work of grace in the heart. These had gone forth to meet the Lord, full of hope in the prospect of immediate reward; but they were not prepared for delay and disappointment. When trials came, their faith failed, and their lights burned dim. {GC 393.4}

"While the bridegroom tarried, they all slumbered and slept." By the tarrying of the bridegroom is represented the passing of the time when the Lord was expected, the disappointment, and the seeming delay. In this time of uncertainty, the interest of the superficial and halfhearted soon began to waver, and their efforts to relax; but those whose faith was based on a personal knowledge of the Bible had a rock beneath their feet, which the waves of disappointment could not wash away....

About this time, fanaticism began to appear. Some who had professed to be zealous believers in the message rejected the word of God as the one infallible guide (i.e., Emerging Church proponents) and, claiming to be led by the Spirit, gave themselves up

to the control of their own feelings, impressions, and imaginations. There were some who manifested a blind and bigoted zeal, denouncing all who would not sanction their course (2520, luni-solar Sabbaths, feast days, etc.). Their fanatical ideas and exercises met with no sympathy from the great body of Adventists; yet they served to bring reproach upon the cause of truth. {GC 395.1}

Now let's make sure we understand this clearly: Those who pass the test, what do they receive? The Seal of God. Those who fail, what do they receive? The Mark of the Beast. Where does this process begin? At the church. When does this process begin? At the NSL. So when does the Harvest begin?

In Prophets and Kings, we read, "The time is not far distant when the test will come to every soul. The observance of the false Sabbath will be urged upon us. The contest will be between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he commandments of men.... At that time the gold will be separated from the dross.... Many a star that we have admired for its brilliance will then go out in darkness" (p. 188).

Notice what happens—the gold will be separated from the dross, which represents the wheat being separated from the tares.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harvest.

When does this come, at the Second Coming? No, but when the NSL is set up and “urged upon us.” A careful reading of Revelation 13:16, 17 makes this evident. (NOTE: This is a passing of an anti-Sabbath law, i.e., prohibition from worshipping and having to work on the seventh day—see Exodus 5 and the dialog between Moses and Aaron and Pharaoh.)

We need not be confused on this subject: “The harvest is the end of the world,” which initiates the little time of trouble, and begins at the NSL and ends at the close of probation, which ushers in the great time of trouble. The harvest is not the end of time—it is the initiation of a process for the final message to be given to those who would hear it. There is a beginning and an ending to the harvest time.

Now, remember judgment begins at the house of God (1 Pet 4:17 & Eze 9:4-6). In other words, probation for the church closes first. We can infer from this that those in the church—professed Seventh-day Adventists—will be tested. Those who fail, will be shaken out; those who pass, will be sealed and receive the Latter Rain and become to give the Loud Cry.

Remember the parable of the ten virgins: For those who waited until the Midnight Cry to get oil in their lamps, it was too late—the door was shut. The oil represents the Spirit of God working in us so we have the righteous character of Jesus—this holy character cannot be formed over night. Inspiration tells us:

I saw that many were neglecting the preparation so needful and were looking to the time of “refreshing” and the “latter rain” to fit them to stand in the day of the Lord and to live in His sight.... They had neglected the needful preparation; therefore they could not receive the refreshing that all must have to fit them to live in the sight of a holy God. Those who refuse to be hewed by the prophets, and fail to purify their souls in obeying the whole truth, and who are willing to believe that their condition is far

better than it really is, will come up to the time of the falling of the plagues, and then see that they needed to be hewed and squared for the building.... I saw that none could share the “refreshing” unless they obtain the victory over every besetment, over pride, selfishness, love of the world, and over every wrong word and action. We should, therefore, be drawing nearer and nearer to the Lord and be earnestly seeking that preparation necessary to enable us to stand in the battle in the day of the Lord. {EW 71}

재림기도인연합 회보

기도인연합 회보는 각 교회의 기도모임 소식을 전하며 재림교회 성도들의 연합기도를 권장하는 단체인 기도인연합의 공식회보입니다. 새로 이메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교회 및 간단한 소개를 하여 admin@prayercoalition.com (제목: subscribe)으로 보내시면 메일리스트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언제나라도 이메일 받기를 원치 않을경우 제목: unsubscribe 로 하여 보내시면 메일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이 회보 내용에 관한 의견 또는 문의는 editor@prayercoalition.com 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인연합/ 연합기도운동 안내

우리들과 교회의 영적 각성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관계 회복이 시급함을 자각하며 2007년 8월 9일 시작된 연합기도운동이 2007년 8월 26일 2차 모임을 시작으로 미주와 해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간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 5:17, 단 10:12) 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때 우리의 교회일은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봉사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고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연합기도운동에 교회에서 단체로 또는 개인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미서부: 253-326-6451 • 626-665-8445 / 동부: 440-600-1857 • 336-340-9274 / 한국: 033-763-1054
/ 일본: 03-5604-5125 / E-mail: info@prayercoalition.com



TEL: 619-758-4006 • FAX: 858-909-8214
Prayer Coalition P. O. Box 1216, Delano, CA 93216-1216
Email: admin@prayercoalition.com Web: prayercoalition.com